

Chapter 1: 여름철물놀이

여름철물놀이의 내용을 텍스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Chapter 2: 산행안전사고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3C)

- 1단계 : 위급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Check)
- 2단계 : 도움을 요청하는 것(Call)
- 3단계 :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Care)

구조 요청 시 꼭 알려야 할 정보

- 응급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 부상자의 상태 정도
-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응급조치

-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의 급성질환이 발생했을 때

등산을 하다가 극심한 가슴통증이 발생했다면 심장혈관, 즉 관상동맥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가슴이 터질 듯 하거나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일 때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해야 하며 119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심혈관계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무리한 등산을 피해야 하며 처방받은 혈관확장제를 미리 준비하여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복용하는 것이 좋다.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을 때에는 등산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해야 하며 호흡을 깊게 천천히 하도록 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고혈압 등 기저질환 있는 환자 등산 시 주의 사항

평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무리한 등산을 하게 되면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뇌출혈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무리한 등산은 피하도록 한다.

· 염좌 또는 골절

넘어지거나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먼저 손상 부위를 차갑게 유지하고 부종 방지를 위해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도록 한다.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직접 압박으로 지혈을 하고 부목을 대도록 한다. 뼈가 외부로 노출된 개방성 골절 부상을 입었다면 뼈를 억지로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지 말고 노출된 부위를 통해 감염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환부를 깨끗한 수건으로 덮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머리손상

등산 중 머리를 다쳤을 때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주변의 도움 또는 119에 신고한다.

· 뱀에 물렸을 때

몸을 눕혀 안정시킨 뒤 주변을 조용하게 한 후 움직이지 않게 하고, 손상 부위 5~10cm 위쪽을 묶어(주의, 강하게 묶지 않도록 한다) 심장 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해주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한다. 뱀에게 물린 경우 뱀의 모양을 잘 살펴야 한다. 동물에게 물린 상처는 여러 가지 감염증의 원인이 되므로 119에 신고 후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하며 환자를 안정시킨다.

· 절지동물(곤충류, 거미류 등)에 의한 물림과 찔림의 경우

산행 중 꿀벌에게 쏘이는 경우, 억지로 독침을 빼려 하지 말고 쏘인 부위에 벌침이 보인다면 신용카드 같은 얇은 도구를 이용하여 살살 긁어 주면 곧 벌침이 빠진다. 이 후 환부를 절대로 문지르지 말아야 하며, 전신반응(호흡곤란, 청색증, 의식변화 등)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므로 빠르게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 열상

열상이 있을 때에는 열상의 정확한 부위를 확인한 후 거즈 또는 깨끗한 수건으로 환부를 덮고 손으로 눌러주면 지혈이 된다. 열상은 대부분 상처를 봉합해야만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응급실을

내원하여야 한다.

· 저체온증

저체온증은 열 발생이 많거나, 저온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심부 체온이 저하된 경우이고, 보통 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간 상태를 말한다. 만약 체온이 저하되었다면 젖은 의복 제거 및 마른 옷가지로 환자를 감싸고 저온환경에서 환자를 이동시켜 저온 노출로부터 환자를 보호한다.

· 찰과상

등산 시에는 날카로운 나뭇가지나 등산장비 등에 피부를 긁히거나 베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만약 피가 멈추지 않거나 출혈이 심각 할 때는 환부를 심장보다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고 피가 나는 부위는 깨끗한 수건 등으로 직접 압박을 통해 지혈하도록 한다.

· 탈진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산을 하면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쉬는 동안에도 수분과 음식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도록 하며, 알코올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에 오를 때는 어떻게 할까?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친다.
- 하루 8시간을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비축한다.
- 일행 중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한다.
- 될 수 있으면 30킬로그램 이상의 짐을 지지 않는다.
- 배낭에는 기상이변 등을 대비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 축전지), 상비약품을 준비하고 손에는 될 수 있으면 물건을 들지 않는다.
-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성이 좋은 것을 신는다.
-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섭취한다.
- 산에서는 아는 길도 자주 지도를 보고 확인한다.
-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는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확인한다.
- 등반로 외의 산행을 삼가고,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여 능선으로 올라간다.
-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고 안전하게 걷는다.

Collected Text

-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 발 디딜 곳을 잘 살펴 천천히 걷는다.
- 처음 몇 차례는 15~20분 정도 걷고 5분간 휴식하고, 차츰 30분 정도 걷고 5~10분간 휴식한 다음 산행에 적응이 되면 1시간 정도 걷고 10분간씩 휴식하는 것이 좋다.
- 산행 시에는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여 현재 위치를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안전하게 디딘다.
- 썩은 나뭇가지 풀, 불안정한 바위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않는다.
- 급경사 등 위험한 곳에서는 보조 자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산에서 캠핑할 때는

- 야생동물이나 곤충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뱀 등이 나타나면 절대로 공격을 하면 안 된다.
- 계곡에서 캠핑할 때는,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물 가까이 텐트를 치지 않는다.
-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바닥이 평평해야 하며, 뒤에 암벽이나 언덕이 없어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에 텐트를 친다.
- 벌레에 물리면 비눗물로 즉시 씻고,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바른다.
- 휴대용 랜턴, 라디오, 밧줄(로프), 구급약품 등을 준비해둔다.
- 호우주의보 발령 시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기상상태를 주시한다.
- 등산 중일 때에는 빨리 하산하거나 급히 높은 지대로 피신하되, 물살이 거센 계곡을 절대로 건너지 않는다.
- 야영 중에 물이 밀려들 때에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대피한다.
- 집중호우 시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교량)는 건너지 않는다.

국민행동요령

산행 안전

Collected Text

등산로를 미리 파악하고 통신장비 등 기본 등산장비를 휴대하며 음주, 단독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고 해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쳐야 합니다.

하루 산행은 8시간 이하로 하며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합니다.

배낭 무게는 가급적 가볍게 하고 발에 맞는 등산화를 신어야 합니다.

사고를 대비하여 비상식량을 챙기고 산행 중 음식물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곳은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천 시 계곡산행은 피해야 하고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급류로 바뀔 때에는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낙석이 자주 일어나는 경사진 곳과 바위벽 아래를 지날 때에는 낙석에 유의합니다.

산행 중 조난 또는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계곡을 피하고 능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소관부서 : 소방청 119구급과 (044-205-7633)

Chapter 3: 응급처치

응급처치 국민행동요령

1. 응급처치의 필요성

응급처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명보험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은 심장마비 후 4분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처럼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서 부상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질병과 상처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상황을 고작 한두 번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우리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2. 응급처치(First Aid)란 무엇인가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다 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위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서 사람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하며, 회복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또한 의학적 치료 여부에 따라 장애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도 있다. 응급처치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실시하는 것이지만 상대가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는 곧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 이처럼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처치할 줄 안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기본증상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병원으로 옮겨 지기도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비록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도 실제 응급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는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침착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응급처치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인 문제

응급처치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동의

응급처치를 하기 전 처치자는 반드시 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다. 허락이나 동의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어떤 면에서는 폭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부상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응급처치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

* 명시적 동의 의식이 있는 경우 즉,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성인에게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처치자는 자신의 이름을 대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할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부상자는 상태에 따라 직접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할 것이다.

화상

불, 뜨거운 증기, 기름, 물, 주방기구 등에 의해서 화상을 입으며, 주로 어린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적어도 10분 동안 담가야 합니다.

상처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합니다.

얼굴에 난 화상은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낸 거즈를 덮습니다.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맙시다.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맙시다.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열로 인한 질환 예방

Collected Text

불, 뜨거운 증기, 기름, 물, 주방기구 등에 의해서 화상을 입으며, 주로 어린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적어도 10분 동안 담가야 합니다.

상처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합니다.

얼굴에 난 화상은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낸 거즈를 덮습니다.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맙시다.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맙시다.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열 경련이 발생하였을 때는

더운 기후나 심한 운동 후에 주로 나타나며 땀을 흘림으로 신체의 전해질을 변화시켜서 손과 발, 복부에 경련을 일으키는 것으로 때로는 어지러워 쓰러질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편안한 자세를 해주고 의식이 있는 경우 입으로 이온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일사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열 손상 중에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더운 곳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였거나 장시간 햇볕을 쬐면 일어나는 것으로 토할 것 같은 느낌과 어지러움, 두통, 경련, 일시적으로 쓰러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편안한 자세로 눕어두고 옷을 벗겨줍니다. 부채질을 해주거나 이온음료 또는 물을 줍니다. 단,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일사병은 보통 시원한 곳에서 안정시키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나 주위가 덥고 의식이 없어졌다고 하여 다 일사병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사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흔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병으로 격렬한 신체활동이 있으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고 때로 잠긴 차량 안에서도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붉은색을 띠고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주고 부채질을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신속히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뱀에 물렸을 경우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민간요법 지양,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
우선 환자를 뱀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119 또는 1339의 도움을 청한다.

환자를 안정시키고 물린 팔 또는 다리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킨다.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는다. 비누는 독소를 불활성화 시킬 수 있다.

물린지 15분 이내인 경우에만 다음의 처치를 실시한다.

- 물린 부위의 10cm 위쪽(심장에 가까운 쪽)을 폭 2cm 이상의 넓은 끈이나, 천으로 묶는다. 묶은 후 손가락 하나가 통과하도록 느슨하게 묶어야 하며, 절대로 꼭 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병원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1시간 이상)에는 진공흡입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독을 빨아 낼 수 있다. 입에 상처가 있거나, 치아가 결손난 사람은 절대 입으로 독을 빨아내서는 안 된다.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입으로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구토가 일어나면 몸을 옆으로 기울여준다.

하지 않아야 할 처치

- 상처를 칼로 절개하지 않는다. 혈관, 신경 등 구조물을 손상할 뿐 아니라, 2차 감염이나 파상풍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
- 상처에 담뱃재, 된장 등을 바르지 않는다.
- 뱀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 상처에 얼음을 직접 대지 않는다. 냉찜질은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나, 독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상처부위의 손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벌에 쏘였을 경우

쏘인 부위 벌침이 남아있으면 바늘이나 칼 등으로 제거, 없으면 신용카드로 긁어서 제거 후 2차 감염
방지 위해 비누와 물로 씻을 것

환자를 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 또는 1339에 연락한다.

피부에 벌침이 남아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한다. 집게 등으로 제거할 때, 침에 남은 독을

짜서 밀어 넣게 될 수 있다.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고, 통증이 심한 경우 얼음을 주머니에 싸서(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대준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입으로 아무것도 섭취시키지 않는다.

과호흡증후군 응급처치

가슴에 통증이 생기거나 팔다리가 꼬이는 느낌이 들며 숨이 매우 가파지는 증상을 나타낸다.

약사와 상의하여 비상시 필요한 약품들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일단 자리에서 똑바로 누힌 후, 짝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하는 등 심신의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집에 꼭 두어야 할 약품

미숙한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부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전문기관에서 손쉽게 응급처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역 소방서,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청, 경북)에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apter 4: 해파리피해

해파리에 쏘였을 때 대처요령

해파리 접촉피해 응급대처법

- 쏘인 즉시 환자를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쏘인 부위가 넓거나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호흡곤란, 의식불명) 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구조요원에게 도움을 청한다.

-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공호흡을 비롯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쏘인 부위는 식염수로 세척합니다.

- 해파리 쏘임시에 알코올 종류의 세척제는 독액의 방출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금한다.

작은부레관해파리의 쏘임시에는 식초가 독액의 방출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식초를 이용한 세척을 금한다.

- 테트라싸이클린(Tetracycline) 계열의 연고를 쓰임부위에 발라준다.
- 열찜질 또는 냉찜질을 하면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독성학교실 제공자료

해파리에 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

- 회초리로 맞은 듯한 발진과 통증, 가려움증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 혈압저하, 호흡곤란, 의식불명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해파리의 종류별 특징

1. 해파리의 형태

강장동물의 히드로충류와 해파리류는 생활사 중 폴립형으로서 고착생활을 하는 시기와 해파리형으로 부유생활을 하는 시기가 교대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히드로충류의 해파리는 소형이다. 유충동물의 오이빃해파리(*Beroë cucumis*)와 풍선빃해파리(*Hormiphora palmata*)는 폴립의 시기가 없고 해파리형뿐이며 또 모양이 아주 변해 있는 종류가 많다.

해파리의 몸은 보통 우산 모양으로 2개의 층 사이에 한천질로 차 있고 부유생활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 히드로충류의 해파리는 우산의 밑면 중앙으로부터 긴 입자루[口柄]가 나오고 그 끝에 입이 열려 있으나, 해파리류가 되면 입에 4개의 입술이 발달하고 이것이 다음에 4개의 구완이 되는데, 숲뿌리해파리(*Rhopilema esculenta*)에 8개의 구완이 있는데, 거기에 많고 작은 촉수와 막대 모양의 작은 부속물을 붙이고 있다.

우산 가장자리에는 촉수와 감각기인 안점(眼點) 및 평형기(平衡器)가 있다. 촉수는 적은 것에서는 4개이고, 많은 것에서는 수백 개가 있다. 촉수의 표면에 자포(刺胞)가 있는데 그 속에서 독침이 나와 먹이를 잡거나 적을 공격한다. 안점은 히드로해파리류에서는 촉수의 밑동에 있고 해파리류에서는 평형기와 같은 곳에 있다. 몸의 위치를 정하는 데 쓰이는 평형기는 보통 촉수와 촉수 사이에 있으나 빃해파리류에서는 우산의 꼭대기에 있고 일부의 히드로해파리에는 없다.

해파리의 소화기관은 입에서 구도(口道)를 지나 위강에 이어져 있고 위강에서 우산의 가장자리로 향해 4개 또는 그물눈 모양으로 방사수관(放射水管)이 나와 우산의 가장자리에서 하나의 환상관(環狀管)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 관은 먹이의 소화와 흡수뿐만 아니라, 호흡기관·순환기관·배설기관도 겸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는 해파리 특유의 것으로 소화계와 순환계 등이 직접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위수관계(胃水管系)라고 한다.

해파리류의 위강 속에는 자포와 선(腺)이 집합한 위사(胃絲)가 있어 소화를 돕는다. 빗해파리류에서는 아래쪽에 열려 있는 입이 위강에 연결되고, 위쪽으로 올라가 누두관(漏斗管)을 만들며, 몸 주변의 상하 방향으로 달리는 8개의 자오관(子午管)과 연결된다. 또 위(胃)에서 적도면에 관을 내어 8개의 자오관과 연결되어 있다. 자오관이 있는 곳의 몸 표면에는 즐판(櫛板)이 위아래 방향으로 각각 1열이 있으며 이들의 운동에 의해 이동한다.

몸에는 자포가 없고 빗해파리류 특유의 점착세포[膠胞]로써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다. 폴립시기가 없이 평생 부유생활을 하나 장넙적빗해파리류(Coeloplana)는 어미가 되면 성게나 불가사리의 몸 표면에 붙어서 기어다닌다. 물론 즐판은 없다.

2. 해파리의 생태

히드로해파리류에는 우산이 깊고 안점이 있으나 평형기가 없는 큰바다히드로류(다리히드라·다리히드라불이), 우산이 얇고 평형기를 가지는 연해파리류(오벨리아해파리·모자해파리), 담수·기수·해조 사이 등 특수한 환경에 살고 있는 민물해파리류, 일생 동안 해파리형으로만 지내는 경해파리류(우산해파리), 복잡 다양한 군체를 만들고 평생 부유성인 관해파리류(기수관해파리·수정관해파리·돛대관해파리·애기백관해파리·브로치관해파리) 등이 있다.

해파리류에는 십자해파리류(나팔꽃해파리·십자해파리·벌레해파리), 몸이 입방형으로서 4개의 촉수가 있는 입방해파리류(카리브해파리·불해파리), 심해에 사는 것이 많고, 색채가 암갈색 또는 짙은 자색을 한 관해파리류(에피라해파리·보라위빌래해파리), 우산이 넓적하고 크며 4개의 구완(口腕)과 우산 가장자리에 촉수가 있는 기구해파리류(빨강해파리·물해파리·유령해파리), 우산이 높고 우산 가장자리에 촉수가 없으며 구완에 작은 흡수구가 무수히 있는 근구해파리류 등이 있다.

유충동물은 촉수가 발달해 있는 유촉수류와 촉수가 전혀 없는 무촉수류로 나누어져 있다. 유촉수류에는 풍선빗해파리·감투빗해파리 등이 있고 무촉수류에는 오이빗해파리가 있다.

해파리 중 숲뿌리해파리와 근구해파리의 갯부분을 식용하는데 갯은 반구 모양의 한천질로 두껍고

단단하며, 지름 1m, 무게 150kg이 되는 담갈색의 것과 지름 25~30cm 되는 담청색의 것이 있다. 해파리류는 93~95%가 수분이다. 따라서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건조시켜서 소금-명반 용액에 담가 소금절임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을 조리할 때는 하루 동안 물에 담가 소금기를 빼고 거죽을 비벼 벗긴 다음, 식초절임이나 무침으로 한다.

3.해파리의 종류

노무라입깃해파리 (*Nemopilema nomurai*)

특징 : 우산은 연한 갈색을 띠고 견고하며, 최대크기는 180cm 이다. 우산의 내부에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구완은 측면에 J 모양으로 되어 있고, 많은 촉수가 끝에 달려 있다.

출현 시기 및 분포 : 6월 제주에서 8월 중순에는 우리나라 전역에 출현하며 12월 초순까지 서식한다.

증상 : 통증과 홍반을 동반한 채찍 모양의 상처가 생길 수 있다.

* 직경이 150cm 무게가 100kg이 넘는 대형으로 독성이 있다. 6월말 제주에서 출현, 8월 중순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출현하며 12월 초순까지 서식.

유령해파리 (*Cyanea capillata*)

특징 : 몸체는 연한 우유빛이며, 우산의 크기는 30-50 cm 정도이다. 촉수는 하얀색으로서 우산 내부의 잘 발달된 근육사이에서 수 백개씩 덩어리져 내려오며, 촉수 덩어리는 점액질과 자포로 뒤덮혀 있다.

출현 시기 및 분포 : 7월부터 11월까지 남해안 일대에 분포한다.

증상 : 붉은 반점과 경미한 통증을 동반한다.

작은부레관해파리(*Physalia physalis*)

특징 : 몸 전체가 푸른색이며, 삼각형 모양의 기포체를 가지고 있어 해표면에 수평적으로 분포하고,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 크기는 5-15 cm가량이며, 기포체 아래에 구슬모양의 촉수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맹독성을 지닌 자포를 가지고 있다.

출현 시기 및 분포 : 6~8월, 제주도.

증상 : 심한 통증과 더불어, 홍반을 동반한 채찍 모양의 붉은 선이 생긴다.

야광원양해파리 (*Pelagia noctiluca*)

Collected Text

특징 : 우산의 크기는 7-8 cm 가량이며 우산 위에 울퉁불퉁한 자포낭이 산재하여 있다. 분홍색, 노란색, 연한분홍색등의 색을 띠며, 우산 가장자리에서 여덟 개의 촉수가 나오며, 우산의 내부에서 4개의 구완이 커튼 모양으로 늘어져 나온다. 촉수와 우산 윗부분에 독성이 있다.

출현 시기 및 분포 : 5-7월, 제주, 남해안.

증상 : 통증,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있다.

커튼원양해파리 (*Dactylometra quinquecirrha*)

특징 : 우산은 연한 갈색이고 크기는 10-20cm 가량이고, 갈색의 방사상 줄무늬가 나있다. 갈색의 촉수가 우산 가장자리에서 길게 나온다. 우산의 가운데에 입이 있고, 리본 모양의 구완이 길게 나오는데, 접착성이 강하여 동물플랑크톤이나 어류를 녹이고 입으로 이동시킨다.

출현 시기 및 분포 : 봄

Chapter 5: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 정지 초기 5분의 대응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응급상황 시 초기 목격자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소생율이 3배 이상으로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환자의 반응 확인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를 외치면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119 신고

환자의 의식(반응)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Collected Text

가져오도록 부탁드립니다.

호흡확인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가슴압박 30회 시행

각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30회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 압박깊이: 5cm, 압박속도: 분당 100~120회

기도 개방

인공호흡을 위해,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합니다.

인공호흡 2회 시행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착시킨 후,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습니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회복자세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가슴압박 위치

성인과 소아 심정지 환자에서 가슴압박의 위치는 가슴뼈의 아래쪽 1/2입니다.

국민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AED)

심장충격기 켜기

심장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합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심장충격기의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두 개의 패드 부착

패드 1: 오른쪽 쇄골 아래

패드 2: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선에 부착합니다.

심장리듬 분석

Collected Text

심장충격기가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에게 닿지 않게 떨어집니다. 심장충격이 필요하면 “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되고, 충전 중엔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심장분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합니다.

심장충격 실시

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충격 버튼이 깜박입니다. 깜박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을 실시합니다.

※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합니다.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심장충격을 실시한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 실시합니다.

Chapter 6: 붉은불개미

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으려면

- 개미집을 건드리지 않는다.

※ 개미집은 대체로 흙무덤 모양이나 나무 등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야외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확인해야 함

- 땅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 때는 개미에 덮여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죽은 붉은불개미에도 침이 나와 있어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함

- 장갑, 장화 등을 착용하고 바지를 양말이나 장화(신발) 속에 집어넣어 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게 한다.

- 야외활동시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한다.

붉은불개미에 물렸을 때는

- 붉은불개미가 달라붙거나 물면 신속하게 세게 쓸어서 떼어낸다.

- 붉은불개미에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물린 자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농포(고름)가 형성될 수 있다.

- 농포가 터질 경우 세균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붉은불개미로 인한 증상은 대부분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하므로,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의료진에게 개미에 물렸음을 꼭 알린다.
-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가려움증의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료를 받는다.
- 드물게(약 0.6~6%)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와 같은 전신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개미에 물린 후 어지러움증, 오심, 발한, 저혈압, 두통, 호흡곤란, 목소리의 변화 등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이용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진료를 받는다.

<붉은불개미>

붉은불개미 대처 관련 질의응답(FAQ)

1. 붉은불개미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성묘·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옷과 장갑 및 장화를 착용하며,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 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미집(흙무덤 모양이나 나무 등에도 있을 수 있음)을 건드리지 않고, 땅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 때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붉은불개미에 물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물린 자리가 빨갱게 부어오르게 되고 하루나 이틀 정도 후 농포(고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농포가 터질 경우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가려움증, 발열, 두드러기, 두근거림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드물게(약 0.6~6%)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와 같은 전신 증상으로 진행되면 어지러움증, 오심, 발한, 저혈압, 두통, 호흡곤란, 목소리의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붉은불개미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붉은불개미가 달라붙거나 물면 신속하게 세게 쓸어서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 물린 직후에는 20~30분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몸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얼음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수건으로 얼음을 감싸서 15분 간격으로 냉찜질을 실시하고, 붓기를 줄이기 위하여 물린 부위를 높게 올려주세요.

- 가려움증 등의 심하지 않은 증상만 있을 경우도,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에게 개미에 물렸음을 꼭 알려주세요.

- 특히, 드물지만 과민성 쇼크로 전신증상이 나타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즉시 119를 이용하여 응급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Chapter 7: 승강기안전사고

승강기사고 시 국민행동요령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를 이렇게 예방합니다.

-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탑승정원이나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작반의 인터폰,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맙시다.
- 버튼을 불필요하게 누르거나 난폭하게 다루지 맙시다.
-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심한 장난을 하지 맙시다.
-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흔들거나 손으로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맙시다.
-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실내등이 꺼지면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연락합니다.
- 엘리베이터가 도중에 정지하면 임의로 탈출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 비상환기구(탈출구)는 탈출구가 아니므로 열려고 하지 맙시다.
- 구조를 요청하여 구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 굉음이 들리거나 진동이 있으면 인터폰으로 연락합니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도록 하고 애완동물은 안고 탑승합니다.

Collected Text

-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맙시다.
-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출입문의 문턱 틈이나 문사이에 이물질을 버리지 맙시다.
- 관리자의 입화·허락 없이 크거나 무거운 화물을 무단으로 싣지 맙시다.

2. 화재시의 엘리베이터 안전은 이렇습니다.

- 빌딩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맙시다.
 -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시고, 빌딩 내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지상 층으로 불러들여 문을 닫고 정지시켜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수직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 가까운 층에 내린 후, 관리실에 즉시 연락합시다.

3.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이용합시다.

- 의복, 스카프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핸드레일을 잡아주세요.
- 황색 안전선 안쪽에 타야 합니다.
- 가장자리에는 발이 닿지 않도록 합시다.
- 유아와 애완동물은 안고 타야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의 손을 꼭 잡고 타야 합니다.
- 주행방향을 거슬러 타거나 장난을 하지 맙시다.
-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놀지 않도록 지도합시다.
- 계단에 앉거나 맨발로 타지 맙시다.
- 동전, 열쇠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도록 합시다.
- 유모차 등은 접어서 들고 타야 합니다(수평보행기 제외).
- 화물을 싣거나 계단에 놓지 맙시다(수평보행기 제외).
- 담배를 피우거나 꽂초, 쓰레기 등을 버리지 맙시다.
- 비상정지 버튼을 함부로 누르지 맙시다.

· 핸드레일 밖으로 머리나 팔을 내밀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행동요령

승강기 안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출입문에 기대면 위험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 무리한 탈출은 위험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요청을 합니다.

비상버튼으로 구조요청을 하고, 연결이 안 될 경우 직접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합니다.

승강기에 갇혀도 질식의 위험이 없으니, 자세를 낮춘 뒤 안전손잡이를 잡고 침착하게 대기합니다.

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화재나 지진 시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합니다.

소관부서 : 승강기정책과 (044-205-4297)

Chapter 8: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한 놀이기구별 안전수칙

1. 공통사항

· 영유아는 보호자의 동반하에 놀이기구를 이용해야 한다.

Collected Text

- 사용하는 놀이기구가 이용자의 연령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 사용하는 놀이기구별 안전수칙대로 이용한다.
- 놀이에 부적합한 끈이 달린 옷 또는 슬리퍼 등을 착용하거나 책가방, 장난감 등을 소지한 채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 난간과 밧줄이 있는 놀이기구는 항상 두손으로 잡고 이용한다.
- 한여름 또는 눈이 올 때는 놀이기구가 뜨겁거나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 후에 이용한다.
- 놀이기구가 젖어있거나 어두울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놀이시설에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위험한 상태로 되었을 때 또는 다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 놀이를 중단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 놀이기구를 소중히 이용하며, 낙서하거나 부착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놀이기구는 차례대로 이용하고, 사용 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놀이기구 주변에서는 야구, 축구, 배드민턴, 공놀이, 자전거 타기 등을 삼가야 하며,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을 세워 두어서도 안 된다.

2. 그네

- 그네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타고 내린다.
- 엎드리거나 두발로 서서 이용하면 위험하며, 그네 좌석 중앙에 앉아 양쪽 손잡이를 잡고 탄다.
- 움직이는 그네 좌석 주변에 가까이 가거나 다른 놀이를 하지 않는다.
- 그네 줄을 꼬면서 타거나 비어있는 그네 좌석을 흔들지 않는다.
- 1인용 그네를 2명이 동시에 타지 않도록 한다.
- 그네 옆에 설치된 안전대에 걸터앉거나 놀이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3. 미끄럼틀

-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지 않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용한다.
(참조: 최근에는 계단 없는 둔턱 미끄럼틀이 많이 설치됨)
- 미끄럼틀을 이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는다.
- 미끄러지기 전에 앞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한 사람씩 내려온다.

Collected Text

-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는다.
- 줄넘기 등을 신체 일부에 묶거나 두른 채 내려오지 않는다.
- 미끄럼틀 타고 내려올 때 다른 도구를 소지하거나 타고 내려오지 않는다.
- 내려온 뒤에는 뒤따라 오는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재빨리 비켜준다.
- 미끄럼틀 난간 바깥쪽을 잡고 올라가거나 미끄럼틀 위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지 않는다.

4. 공중 놀이기구

- 표시된 안전 수칙에 따라 이용하며, 차례대로 한 사람씩 이용한다.
- 출발하기 전에 앞의 공간이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이용한다.
- 조심스럽게 아래로 미끄러지며 출발한 후 흔들리는 손발에 주의하며 중간에 뛰어내리지 않는다.
- 도착할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두 발로 착지한다.
- 타고 있는 사람을 밀치거나 잡지 않는다.
- 타고 있는 사람 주변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다른 놀이를 하지 않는다.

5. 회전 놀이기구

- 사용 전에 사용 연령과 인원을 확인하고, 놀이기구가 멈추었을 때만 타고 내린다.
- 회전 중에 친구와 미는 등 장난을 하지 않는다.
- 회전대를 갑자기 고속으로 밀거나 억지로 멈추기 위해 붙잡지 않는다.
- 회전하는 기구 주변으로 다가가지 않으며, 완구 등 소지품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는다.

6. 흔들 놀이기구(시소, 흔들말)

- 시소는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탄다.
- 시소를 서서 타거나 움직이는 중에 뛰어내리지 않는다.
- 비어있는 시소를 갑자기 누르거나 흔들지 않는다.
- 움직이는 시소의 중앙에 올라가지 않는다.
-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시소 밑에 발을 두지 않도록 한다.

7. 조합놀이대(각 놀이기능 부분 참조)

- 놀이기구에 이미 다른 사람이 많은 경우 여유 공간이 생길때까지 기다린다.

Collected Text

- 오르는 기구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이용하며 중간에 뛰어내리지 않는다.
- 난간 또는 울타리 위로 오르거나 신체 일부를 끼어 넣지 않는다.
- 놀이기구 위에서 상대방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놀이를 하지 않는다.

8. 건너는 기구(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사용 전에 구름다리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한다.
- 한 사람씩 앞 사람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이용한다.
- 구름다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잡아당기거나 밀지 않는다.
- 앞사람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내려올 때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천천히 내려온다.

9.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오르는 기구

- 두 손과 발이 허공에 있지 않도록 단단히 잡고 이용한다.
- 먼저 올라 간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며 이용하며, 두 손으로 잡을 곳이 없다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 놀이기구의 꼭대기에 서 있거나 누워있지 않는다.
- 기구 위에서는 다른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놀이기구 위에서 상대방을 잡거나 밀지 않는다.
- 내려올 때는 뛰어내리지 않고 아래를 살피고 천천히 한발씩 내려온다.
- 위에 누군가가 있을 경우 그 밑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10. 폐쇄형 놀이기구

- 놀이기구 안에서 놀이 이외에 잠을 자거나 게임 등 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통로가 아닌 곳을 오르거나 볼풀장 바닥에 누워 있지 않는다.
- 통로가 낮고 좁은 곳을 통과할 때 머리 충돌에 주의한다.
- 기구에 부착된 네트 망 위로 또는 바깥에서 오르지 않는다.
- 매달려 타는 기구(트랙라이더)는 한 사람씩 차례로 이용한다.

11. 물이용 놀이기구

-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는다.
- 벗겨지기 쉬운 신발이나 걸림 또는 끼임이 가능한 복장은 착용하지 않는다.

Collected Text

- 물을 마시거나 물속으로 입수하지 않는다.
- 음식물이나 동물 등과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않는다.
- 영유아 등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고, 기저귀를 찬 채 들어가지 않는다.
- 피부병 등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놀이를 삼간다.
- 놀이기구 이용 중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른다.
- 놀이용으로 설치되지 않는 버킷이나 물 분사 등에 이용되는 시설에는 올라가거나 걸터앉지 않는다.
- 젖은 상태의 놀이기구의 표면은 매우 미끄러우므로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이용해야 하며, 뛰어서는 아니 된다.

12. 바닥재

- 놀이 중에 모래나 바닥 재료를 던지지 않는다.
- 날카로운 유리, 금속조각, 동물의 분뇨 등이 있으면 놀이를 중단한다.
- 뛰어다닐 수 있는 바닥 가운데에 자전거, 킥보드 등을 놓지 않는다.
- 낮은 언덕 도는 경사진 바닥에서는 미끄럽지 않은지 조심하며 놀이한다.
- 고무매트 등 인공 바닥 재료를 파헤치거나 떼어내지 않는다.

13. 기구이용형 그네

13.1 공통 안전수칙

- 신체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가 휠체어유모차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해야 한다.
- 기구이용형 그네 이용자 및 보호자 이외에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 기구이용형 그네 울타리에 기대거나 올라가면 안 된다.
- 낮은 언덕 도는 경사진 바닥에서는 미끄럽지 않은지 조심하며 놀이한다.
- 이용이 끝난 후, 안전관리자는 기구이용형 그네의 고정장치 및 울타리 잠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3.2 이용자(보호자) 대상 안전수칙

-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타고 내려야 한다.

Collected Text

- 기구이용형 그네를 장시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이용자와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의 전체 합산 무게가 160kg을 초과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이용자가 과도한 힘으로 회전시키지 않아야 한다.
- 기구이용형 그네 이용자 탑승 시 벨트 등 고정장치로 휠체어 및 유모차를 단단히 고정한 후 사용해야 한다.
- 보호자는 반드시 이용자의 안전한 탑승과 하차를 도와야 한다.
- 탑승 후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의 브레이크 제동을 통해 바퀴의 움직임을 정지해야 한다.
-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기구를 고정시켜야 한다.
- 기구이용형 그네를 이용하는 경우 출입문을 잠금장치로 고정해야 한다.

국민행동요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다른 사람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의 발을

잡거나 흔들지 않습니다.

내려올 때는 아래를

잘 살핍니다.

젖어 있는 기구에서는

놀이 않습니다.

줄을 양손으로 잡고 타며

그네가 움직이는 도중에 뛰어

내리지 않습니다.

배를 깔고 엎드려서 타거나

서서 타지 않습니다.

사슬이나 줄을 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타고 있을 때에는

앞뒤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미끄럼 판으로 올라가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앞사람이 올라간 다음 올라가고

한 사람씩 앉아서

내려옵니다.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습니다.

내려온 뒤에는 다음 사람이

내려오다 부딪치지 않도록

빨리 비켜줍니다.

소관부서 : 안전개선과 (044-205-4213)

Chapter 9: 식중독

식중독 발생시 대응 요령

·식중독 의심증상(복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집단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식중독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식중독 예방 요령

식중독 예방 6대수칙

-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구분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 식중독 예방 6대수칙 세부내용

수칙 세부내용

손 씻기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씻기

② 조리·화장실 사용 전 후, 먹기 전에는 꼭 비누를 사용하여 손씻기

익혀먹기 ①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 육류(중심온도 75℃, 1분 이상), 어패류(중심온도 85℃, 1분 이상)

끓여먹기 ① 음용수는 끓여서 섭취하고 정수기는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구분사용하기 ① 조리기구(칼, 도마 등)는 용도별(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가공식품용 등) 구분

② 육류, 어패류, 가금류, 계란은 채소, 과일류 등과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기

세척·소독하기 ① 채소, 과일 등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서 섭취

② 세척 시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주의 (생채소 → 육류 → 어류 → 가금류 순으로 세척)

③ 조리실, 조리도구, 식기는 열탕소독 또는 염소소독 실시

보관온도 지키기 ① 냉장고(5℃), 냉동고(-18℃) 보관온도 지키기

② 차가운 음식은 5℃ 이하, 뜨거운 음식은 60℃ 이상에서 보관하기

③ 냉동식품은 냉장고, 냉수 또는 전자레인지에서 해동

여름철 식중독 예방 요령

-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되는 식재료들이 적절한 온도 관리없이 외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식재료 보관과 부패·변질에 주의하세요.
- 샐러드 등 신선채소류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물은 끓여 마세요.
- 육류와 어패류 등을 취급한 칼·도마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하세요.
- 나들이, 학교 현장 체험학습, 야유회 등을 갈 경우 이동 중 준비해 간 김밥, 도시락 등의 보관온도가 높아지거나 보관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등 음식물 관리에 주의하세요.

겨울철 식중독 예방 요령

- 음식물 조리 전후, 재료 손질 후,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 어패류는 완전히 익혀먹기(중심온도 85℃, 1분 이상)
- 구토,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 구토물은 비닐장갑, 마스크 쓰고 소독하여 치우기

장마철 식중독 예방 요령

- 호우 시, 범람된 물이 닿은 식재료 사용금지
- 가급적 생식제공 자제, 익힌 음식 제공
- 냄새,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무조건 버리기
- 채소류는 3회 이상 세척소독하기
- 칼, 도마 등 조리기구 끓이거나 소독하기
- 싱크대, 조리시설 세척소독 철저

음식점/급식소 운영자

-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보건소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 ※ 현장 훼손, 보관식품 폐기 등 식중독 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역학조사 후 시설과 기구 등에 대한 살균·소독을 실시하세요.

Collected Text

- 조리종사자는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사라지고 2일이 지난 후에 조리에 참여하세요.

Chapter 10: 실종유괴예방

실종유괴 예방

-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
-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 자녀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해 주세요.
-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세요.
- 정기적으로 자녀사진을 찍어두세요.

국민행동요령

어린이 실종 유괴 예방

잘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합니다.

※ 경찰서나 안전드림 앱을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아이 사진을 찍습니다.

※ 안전드림 앱을 통해 갱신 가능합니다.

집 주변, 등하굣길 주변의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알려줍니다.

※ 안전드림 앱,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두지 않고, 항상 자녀와 같이 다닙니다.

※ 잠깐이라도 차 안에 혼자두지 않습니다.

이름표, 미아방지 팔찌 등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합니다.

Collected Text

※ 유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름과 연락처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새깁니다.

아이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둡니다.

※ 친구와 그 보호자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합니다.

아이의 현재 위치와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아이가 실종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Chapter 11: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의 내용을 텍스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Chapter 12: 가정폭력예방

가정 폭력 예방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112 신고 후 전화기의 숫자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보이는 112'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영상전달, 위치확인, 채팅이 가능합니다.)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Chapter 13: 억류 및 납치

억류 및 납치

- 만일 인질로 억류되었거나 납치 감금을 당했다면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하라는 대로 응하고 급작스러운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 탈출 성공 가능성이 아슬아슬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말해 100% 탈출 자신이 없으면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납치된 사람이 여럿(많은 수의 사람)일 때는 잘 띄지 않도록 처신하고, 납치범에게 위협적인 인상을 쓰는 것은 금물이며, 납치범과 눈이 마주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 납치범들이 무엇인가를 물어올 때는 답은 되도록 짧게 자연스러운 자세로 대답하고,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 납치범이 무엇인가 지시할 때는 공손하고 순응하고,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며, 육성녹음을 요구할 때 기꺼이 응하도록 합니다.
- 구출작전이 전개될 때는 즉시 옆드려야 합니다.
- 눈을 가리면 주변의 소리·냄새·피랍로 경사와 거리·범인 음성 등 기억
- 건강 유지를 위해 계속 운동하고, 주는 것은 모두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약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 납치범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으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석방시기가 임박할 때도 자제력을 잃지 않도록 하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여서도 안 됩니다.
- 어떠한 상황에서건 외부에게 구출을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므로 자제력을 잃지 말고 절망감을 느껴서는 안되며, 탈출로 등 자신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Chapter 14: 석유제품 사고

석유제품 사고의 내용을 텍스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